

성신강림 대축일

제 1독서 : 사도 2, 1-11
 제 2독서 : 1고린 12, 3b-7, 12-13
 복 음 : 요한 20, 19-23

술정이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요한 20, 22-23).

강 론

“새롭게 하소서”

한 기 호 신부 / 월명동 천주교회

오늘은 성신강림 대축일이다. 인류 구원 역사 안에서 일어난 모든 신비스런 일들을 하느님께서 감추어두지 않고 성령을 통해 새바람과 함께 끊임없이 전파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축일이다. 부활하신 주님도 전파될 수 있는 새로운 흐름이 필요했기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오늘 성서의 말씀은 이 흐름의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세찬 바람소리가 들려왔다. 불과 같은 혀가 각 사람 위에 내렸다.” 이 분위기 안에서 불고 싶은 대로 부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번져나가게 된 것이다. 세찬 바람은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 지나간 것, 더러운 것, 때 묻은 것. 사랑의 불길은 우리에게 내리어 옛 잘못, 상처, 아픔을 치유시켜주실 것이다.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나 불길을 통해 믿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될 곳은 너무도 많다. 먼저 내 자신부터 이 웃에 이르기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그 분위기 속에서 살아야만 된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나 신도들이 많은 이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듯이 우리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분위기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며 살아간다면 바람 부는 날 산불 번지듯 그 위력은 대단할 것이다.

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도 성령이시다.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주시고 예수를 주님으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성신은 바로 주의 몸인 교회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시자 우리 교회의 혼이시다.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는 성령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활기찬 분이시다. 좋으신 성령이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 계심은 참으로 기쁘고 마음 든든한 일이다. 사도들 위에 내려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말씀이 전파된 그 분위기를 다시 한번 경축하면서 우리도 그 분위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만들기로 다짐해야겠다.

소 리

“전경은 군으로”

최근 전투경찰대원의 탈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3일 휴가 중 부대 복귀를 거부한 이 모 일경(21세)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군인이 되겠다는 의사와 무관하게 독재정권의 방패막이가 돼 민주화 요구를 폭력적으로 짓밟아야 하는 처지에 항상 괴로워했다”며 전경은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대로 되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소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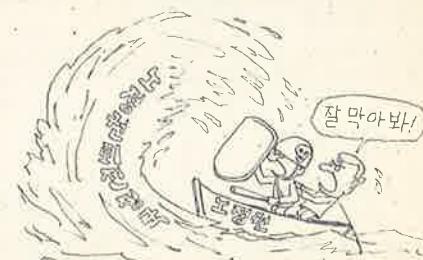
전투경찰은 간첩을 잡는게 기본 임무인데도 5공 이후 대간첩 작전보다는 시위 진압에 더 많이 동원돼 왔다. 전경대원은 국방의무를 이행하려고 입대한 청년들이므로 기본 임무만을 수행케 한다면 본인이나 그 가족이나 이를 마다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경의 주장대로 노동자, 학생, 시민들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 진압에 동원되는 것은 본연의 임무가 아닌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시위는 각 계층의 의사표시의 한 방법일 뿐이며 시위 참여자들이 적이 아닌 이상 시위가 다소 과격하더라도 이를 다스리는 것은 치안 차원의 업무이다. 따라서 시위 진압은 치안을 전담하는 일반 경찰의 임무이지 국방 차원의 임무를 띠고 있는 전경의 몫이 아닌 것이다.

북지에 국정의 큰 비중을 둬야 할 현대국가가 치안하나 제대로 맡지 못한대서야 야경(夜警) 국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어떻게 면한다는 말인가.

시위 현장에서 형과 아우가 목숨을 걸 만큼 치열한 대결을 벌여야 하는 이 비극은 하루빨리 막을 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전경도 의경 백골단과 함께 곧바로 해체돼야 한다. **진**

술정이 산책



一葉片舟

시대의 징표

“국가 보안법 철폐와 백골단 해체,
양심수 석방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제창한다.”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된 우리 사제들의 단식기도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세상에 오신”(요한 18,37) 그리스도처럼 우리 거례와 역사 앞에 진리를 증언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엄숙한 시대적 요청이며 선언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사제들은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의 허물어진 진리와 진실, 도덕이 회복되고 참된 민주화와 민족통일이 이루어지는 조그마한 불씨가 되기를 염원하였으며, 내적으로는 사제적 삶의 거듭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제 ‘국가 보안법과 백골단 해체, 양심수 석방’을 간구하는 단식기도를 마치면서, 그동안 우리의 결단을 온몸으로 지지하여 함께 기도한 동료사제, 수도자, 평신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 단식기도가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화와 민족통일을 이루려는 출애굽적 대장정의 출발임을 선언하며 우리의 뜻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1.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고난받는 민족, 민중과 함께할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세대를 통하여 그 시대의 특징을 탐구하고 복음의 빛으로 그것을 해명해줄 의무를 지니기에”(사목헌장 4항) 우리 사제들과 신자들은 신앙적 양심에 입각하여 이 시대의 징표를 읽고 선포하며 더 나아가 이 민족·민중의 아픔에 동참하며 예언자적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2. 현 정권과 정치는 도덕적 힘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권력은 기계적이거나 폭력적인 형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유와 책임의식에 뿌리박은 도덕적인 힘으로써 전국민적인 힘을 공동선으로 향해주는 권력이라야 합니다”(사목헌장 74항). 따라서 국가 권력과 정치 공동체는 도덕적인 힘을 바탕으로 민의에 따르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현 정권은 허위와 조작, 협박과 폭력으로 그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 정권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와 도덕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치를 해주기를 간곡히 요구합니다.

3. 모든 반민주 악법 철폐와 백골단 해체, 양심수 석방을 요구합니다.

현 정권은 국민의 신뢰와 도덕적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가시적 상징으로라도 모든 반민주 악법의 철



폐와 백골단 해체, 양심수를 즉각적으로 석방해야 합니다. 또한 여·야 정치 지도자들 역시 정치 실종이라는 현실 극복과 국민의 신뢰를 위해 사심없는 마음으로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 우리의 단식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제들의 상징적 단식기도는 오늘로써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나아가 이 땅의 참민주화와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지칠 줄 모르는 복음적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 기도와 다짐의 연장으로 하느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수호할 소명을 부여받은 우리 사제단은 화해와 새사회를 소망하는 긴洁한 소망을 담아 이 시간을 기하여 전국민적인 ‘반민주 악법 철폐와 백골단 해체, 양심수 석방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현 정권의 퇴진 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통일 염원 47년 5월 9일
천주교 전주교구 사제단

홍부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놀부보쌈

오재천(와드레아)
정봉교(마카렐라)
효자동 우진아파트 앞
☎ 223-0297~8

신부 부케 전문점

진선미꽃집

이 마리아
범 디또

☎ 84-2628

우리관

모범업소(조리사의 집)

박설화(조기리아)
김명숙(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32-11 (중앙성당앞)

☎ 85-8848

주단·침구·훈수 전문

부인주단

김한종(요한)
황인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옆

☎ 84-7294

잠 깐!

“전주교구의 페루 선교”

지금 주교님께서는 페루에서 선교하고 있는 교구의 김윤섭 안셀모, 망의성 베드로, 서정현 시몬 신부님과 성체회 수녀님 두 분을 방문하고 계신다. 이것은 주교님의 사목 방문이지만, 주교님을 통해서 교구 전체의 기도와 성원을 그분들에게 전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주교님이 출국하실 때 많은 분들이 주교님을 통해서 전하려고 그들의 정성을 주교님께 맡기셨다. 정말 고마운 일이며, 선교사 신부님, 수녀님들께서도 그 정성을 받고 용기백배하실 것이다. 그분들께 필요한 것은 하느님의 각별한 도우심과 함께 형제들인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이다.

이미 보도를 통하여 알려진 바와 같이 페루에는 쿨레라가 만연하였고, 염증 데 덮친 격으로 큰 치진도 있었다. 그들의 경제 사정은 우리나라의 60년대 이전의 상황이며, 특히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전염병의 퇴치가 더욱 어려울 것이다. 까마르카라는 곳이 그중 심하다는 의심 보도가 있었는데, 그곳은 신부님들이 계시는 곳에서 매우 가깝다. 주님의 특별한 보살핌을 간절히 구할 뿐이다.

그분들의 선교는 교구 전체의 선교 활동의 일부이며, 그분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곳에 파견된 것이다. 천주교 신자는 누구나 이웃의 선교와 함께 세계 선교의 책임을 지고 있다. 이 점을 명심하자. 특별히 주교님이 돌아오시면 그곳의 사정을 자세히 듣고 각자가 그 분들의 선교 활동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진지하게 모색하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교구 소식

정정

* 엄마들을 위한 영화 ‘베이비 봄’ 상영 : 5월 27일(월) 오후2시30분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회비 - 1,000원

- 교구청 휴무 : 5월 20일(월), 교구청 직원 소풍 관계로 휴무합니다.
- 북전주, 삼례 지역 사목회 임원·공소회장 연수 : 5월 25일(토)-26일 천호 피정의 집, 출발-토요일 오후4시 가톨릭센타.
- 전주교구 어린이 백일장 사생대회 : 5월 26일 10시-15시 천호 성지.
- 교도소 사목 후원회 월례미사 : 5월 20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타 1층 강당.
- 호성동 성당 성전기금 마련 바자회 : 5월 24일-27일 장소-인후동 성당.
- 흔인 강좌 : 5월 26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타 회비-5,000원 문의 85-5098.
* 6월, 7월은 흔인 강좌가 없습니다.
- 정정 태아생명 보호 미사 : 5월 27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타 별관 1층 소강당, 행복한 가정운동 85-5098.
- 김진룡 신부 주소 : P. Anton Kim/Rte du Jura 3/1700 Fribourg/Switzerland.

* 교구 물뜨레아 : 5월 21일(화) 10시-17시 해성학교 윤호관

* 축! 영명 : 23일(성디디에) 지정환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 성소모임 살레시오 수도회 : 5월 26일 오후2시 가톨릭센타 2층 평화신문사(062)55-0332.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창조 질서 보전-(농촌3) 폐비닐은 수거해 재활용합시다.

벼려진 비닐은 썩지 않고 토양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비닐하우스 등에 사용되었던 비닐은 한쪽에 모아두었다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공인 중개사 송영은(돈보스코) 사무소

☎ (0652) 87-0088
(자택) 83-0087, 83-0088
무선 호출기 201-7220
토지, 임야, 주택, 상가, APT
전세 매매 일선

신선한 생맥주와 함께 생활의
벗과 여유를 찾으십시오.

카이저호프

* 아르바이트생 모집(신자 환경)
☎ 85-8801
(한성여관 시거리)

트 라 이
실 버 벨
기념 타올

목 화 직 매 장

이리시 영등동(동보시정)
마동 신현 앞

박 심 순(아기다)

☎ 53-5059

요십이 (928) 김병오



† 호성동 성당 건립 대비자금†

- 주관 : 호성동 성당 사무회
- 행사 목적 : 신설 분당 공동체 일치와 단
위당사의 유대 증진
- 일시 : 1991. 5. 21~5. 27 (4일간)
- 사업 내용 : 바탕 사업, 경품전·판매
(₩ 2,000) 나눔·작지
- 결품 내용 : 대상 1명 : 예·위 승용차
2등 1명 : 세·아노. 1등 1등 : 옥·온·나오
2등 3명 : T·V 32인치 5명 : 망·장고
생활상·나눔상 : 각 100만 원
- 경품 추첨일 : 1991. 5. 27 15:00
(성직·일회) 추첨 공고 : 신복인보
(5·28일자), 출장이. 조성·성당 개시기

마리아수도회 성소모임

(마리아니스트)
대상 :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고졸 이상의 젊은 남성
(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때 : 1991년 5월 26일 오후1시.
장소 : 마리아수도원
문의 : (02) 334-8547
(성소 담당자)

자연건강법 교육 및 환자 상담 지도

14시-17시 (일요일 공휴일 제외)
※ 토요 건강 강좌 8주 코스
회비 30,000 원

☎ 82-2933

서서학동 대명APT 나동 509호
평화분회 김순자 (로사리아)
후원: 동신동 성당 주임신부 소순철

영일 혹은 영소

교우 여러분의 건강을 정성껏
도와드립니다.

제일여객, 영일 목욕탕 앞

하영자 (수산나)

☎ 221-5175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호성동성당 신축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 5월24일~27일 장소 - 인후동 성당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진량
보좌신부 82-9661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목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승남

* 오늘은 성신강림 대축일(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있음).

1. 가정방문 : 22일 후2시~중노2가 1·11반 · 23일 전9시~중노2가10반 · 24일 전9시~중노2가 2·9반.
 2. 성모의 밤 행사 : 25일 후7시30분.
 3. 사회복지부장·차장 임명 : 부장-강희자(모니카) 차장-유혜란(가비리나).
 4. 모임 : 꾸리아-오늘 후2시 · 유아세례-25일 후2시30분.
 5. 축! 결혼 : 26일 후1시 신랑-이주형, 신부-이영랑(베로니카).
 6. 금주 청소 : 중노1가11·12반 차주청소-중노2가1·2반.
- 지난주 봉헌금 : 445,120원 □ 교무금 : 319,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일균

*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 오늘. 1. 가정방문 : 22일(수)-다가동2반, 23일(목)-다가동3반, 28일(화), 다가동4반, 30일(목) 다가동5반- · (오후 2시부터). 2. 성모회·요셉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빙센치오회 : 23일(목) 오전10:30분. 4. 유아세례 : 25일 오후7시 사무실에 신청바람. 5. 회장단회 : 26일 저녁미사후. 6. 성모의 밤 행사 : 30일 후7:30분 개인이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 축가. 각 단체별 기도 및 화분봉헌등 준비바랍니다. * 승천대축일 야외행사에 협조하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축" 결혼 26일, 오후 1시 신랑-백만용, 신부-곽수민(블라엘디), 성당청소(25일) : 바다의 멀Pr. 자비의 모후Pr. 금주 전례 : 해설-오교성 독서·봉헌-임영모씨 부부 차주 전례 : 해설-최옥남 독서·봉헌-박종호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303,090원 □ 교무금 : 603,0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종석

* 오늘은 성신강림 대축일 : 페루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1. 청년회·성가정회 : 공식미사후.
 2. 성모회 : 다음주. 공식미사후.
 3. 교구 울뜨레아 : 21일 전10시 해성학교 윤호관. 불참하시는 분도 회비는 납부 하셔야 합니다.
 4. 교리교사의 날 : 오늘, 해성학교 윤호관.
 5. 반미사 : 23일(목) 4구4반 저녁8:00.
 6. 금주 전례 : 해설-여정진 독서① 강덕용 ② 김순이 봉헌-이기봉, 이준희 씨 부부.
 7. 차주 전례 : 해설-유만준 독서① 박시도 ② 정미순 봉헌-남광현, 정영만 씨 부부.
- 차주 전례 : 해설-유만준 독서① 박시도 ② 정미순 봉헌-남광현, 정영만 씨 부부
7. 청소봉사 : 구세주의 모친.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석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웅

* 오늘은 성신강림 대축일 ! (페루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있음).

1. 회의 : ① 성모회-오늘 공식미사후 ② 프란치스코 3회-오늘 오후2시 ③ 꾸리아-다음주일 오후2시.
 2. 일립 : ① 성모의 밤 행사 : 5월25일(토) 저녁미사후 ② 봉성체-5월22일(수)(봉성체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바랍니다). ③ 반모임 : 25반, 5월21일(화) 후8시30분, 9반. 5월22일(수) 후8시반, ④ 주일미사-매주일미사는 신자된 무인 만큼 바쁘시더라도 주일미사에는 참례합시다(천주교계 명증 32개명).
 3. 감사 : 예수승천축일 합동야외행사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25일(토) 성모의 밤 행사에 많은 협조와 지도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54,300원 □ 교무금 : 150,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정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모직환

1. 주일학교 어린이 소풍 : 21일(화) 완산칠봉 9:30 성당 집결.
2. 야외미사에 수고해주신 모든분께 감사.
3. 성모의 밤 행사 : 30일(목) 8:30(성모님께 편지준비).
4. 레지오마리애 단원 피정 : 28일(화) 미리내.
5. 청소봉사 : 안행동.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강명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안 특수

* 오늘은 성신강림 대축일. * 페루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있음.

1. 자모회 : 오늘 오전10시.
2. 교사의 날 시상 및 체육대회 : 오늘 9시-17시, 해성학교 윤호관.
3. 성화회 : 20일(월) 오후6시.
4. 교구울뜨레아 : 21일(화) 10시-17시 해성학교 윤호관.
5. 울뜨레아 : 공식미사후(다음주).
6. 성마리아 꾸리아 : 다음주 오후2시.

금주보수비현금액 : 1,130,000원 현재교모금총액 : 224,614,369원
금주보수비신입액 : 없음 현재신입총액 : 253,119,618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광탁

*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에 정성을 다합시다.

1. L. M. 성지순례(옥외행사) : 6월9일 장소-폐관정지 접수-5월 26일까지 참가비-5,000원(침상제공) 뜻있는 신자도 환영.
 2. 꾸르실료 교구울뜨레아 : 21일 전10시 장소-해성 윤호관.
 3. M. B. W(그리스도공동체목상회) 수련회 : 27일-31일 후7시 30분.
 4. 교직 없는 교우와 쉬는교우 방문 : 23일-3구역, 24일-4구역.
 5. 교도소사목후원회 : 유태미사-20일 전10시30분 센타1층.
 6. 교도소 새자소 성가 경연대회 : 22일 후1시, 상품은 인구함.
 7. 초등부 주일학교 시간 변경 : 매주 토요일 오후2시로.
 8. 회의 : 청년회-오늘 후5시30분, 성가대월례회-어머니미사후.
- 지난주 교무금 : 271,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석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영근

1. 성모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반모임 : 22일(수) 오전10시30분 화산1가.
3. 초중고 및 여성분과 소풍 : 21일(화), 장소-연산, 접경-오전8시30분, 준비물-도시락.
4. 성모의 밤 행사 : 25일(토) 오후8시, 꽃과 초 여성분과에서 판매.
5. 청소봉사 : 자비의 모후Pr.
6. 본당 여성분과에서 생활필수품을 판매합니다.
7. 금주 전례 : 이용무 독서·봉헌-민해리, 유대회.
7. 차주 전례 : 김옥희 독서·봉헌-이현희, 한병갑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종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수현
사목회장 홍수석

* 축, 성신강림 대축일 : 오소서 성신이여 우리의 마음과 삶에 오소서.

1. 첫영성체 : 교리-화~금 국교3년이상 오후4시.
 2. 유아세례 : 오늘 오후4시. 3. 새 예비자(성탄반) 모집. 교리시작-6월 첫주부터 시간은 개시판 참조. 4. 모임안내 : ① 울뜨레아-21일(화) 오전9시 해성학교. 5. 가정방문-개시판 참조.
 6. 성당청소 : 개시판 참조. 6. 토요일 학생미사 : 30, 교리[5시(5월25일 단 하루만 바뀜)] 중고생 성모의 밤 행사-25일 오후8시.
- 지난주 봉헌금 : 542,990원 □ 교무금 : 1,418,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창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홍두

* 2차헌금 있습니다.

1. 사목회 : 저녁미사후.
2. 반 기도회 모임 : 24일(금) 어머니 미사후.
3. 상기리공손미사 : 24일(금) 저녁7:30.
4. 유아세례 : 25일(토) 오후2:00.
5. 교구 울뜨레아 : 해성학교 21(화).
6. 차주모임 : 반석회, 요셉회, 돌담회 나눔의 주일.
7. 금주 전례 : 해설-임창수 독서① 권호상 ② 허선영
기도① 김상권 ② 이귀임 차주 전례 : 해설-박명래

□ 지난주 봉헌금 : 374,040원 □ 교무금 : 299,000원